

TG솔라, 태양전지 미국시장 진출

박막형 효율 대폭향상 기술력 인정 ... 2010년 나스닥 상장 가능성

국내 박막형 태양전지 제조기업 TG솔라가 미국 실리콘밸리 벤처 투자자 등의 중개로 미국 나스닥 상장을 추진하고 있다.

2007년 창립한 TG솔라는 박막형 태양전지 특허를 보유한 유망 중소기업으로 2009년 10월 캘리포니아 실리콘밸리에서 열린 유명 벤처투자자들과의 투자 유치 상담회에 참석해 현지 전문가들의 주목을 받았다.

11월2일 KOTRA 미국 실리콘밸리센터 등에 따르면, TG솔라는 태양전지 효율을 크게 향상시킨 <T-셀스>를 개발해 기술력을 인정받고 있으며 나스닥 상장을 통해 미국시장에 진출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TG솔라가 나스닥 상장을 추진하는 과정에는 미국 실리콘밸리 SVB파이낸셜그룹과 SVG펀드 등 벤처 투자 그룹이 직접 중개에 나서고 있다.

SVB그룹은 최근 TG솔라의 재무제표 등을 전달받고 투자문제를 협의해 왔으며 TG솔라의 미국지사 설립 및 공장 건설도 제안한 것으로 전해졌다.

KOTRA 실리콘밸리센터 김영웅 센터장은 “실리콘밸리 투자자들이 TG솔라의 기술력과 미래에 대해 매우 호의적인 평가를 내렸다”며 “TG솔라가 나스닥 상장을 성공적으로 이루어낼 것”으로 기대했다.

TG솔라 김동제 최고경영자(CEO)는 “미국의 상장 시스템과 절차에 맞춰 이르면 2100년 상반기를 목표로 상장을 추진하고 있다”며 “TG솔라의 기술력을 바탕으로 좋은 성과를 내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09/11/03>